
	<b>보도자료</b>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869-0976 / 이해준 0676 / 손영주 0997 문: 기술사업화센터 최윤경 센터장(02-3299-6127)	
배포번호 : 2020-67 배포일자 : 2020.09.24.(목)	매수 : 보도자료 3매 (첨부자료 포함)

## 넥스트 노멀(Next Normal)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다

### - 유망 기술사업기회 10선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넥스트 노멀(Next Normal)시대가 가져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유망 기술사업기회 10선을 선정하고 분석한 『KISTI 기술사업화 분석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 KISTI 기술사업화 분석 리포트 : KISTI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으로서, 최근 기술사업화 관련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분석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기술사업화 분석 리포트”를 발간함. (<http://boss.kisti.re.kr>, <https://scienceon.kisti.re.kr>)

KISTI 기술사업화 분석 리포트 제 1호 『넥스트 노멀(Next Normal)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다』는 ▲개요 ▲포스트 코로나시대, ‘NEXT NORMAL’ ▲NEXT NORMAL시대, 패러다임 변화와 비즈니스 기회 ▲패러다임 변화 대응 유망 기술사업기회 발굴 프로세스 ▲KISTI 선정, 10대 유망 기술사업기회 분석 ▲시사점 등 6개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COVID-19 팬데믹으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는 등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징후의 중소기업 급증 및 경영위기에 직면할 기업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넥스트 노멀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기업들에게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넥스트 노멀시대가 가져올 패러다임 변화와 그에 따른 10대 기술사업기회를 선정한 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 COVID-19와 관련한 국내의 뉴스, 경제지, 산업시장 데이터, 지식기반의 위키 데이터와 함께 KISTI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망기술 관련 아이템 약 97,000개와 약 26만개 문서 및 전문가 리뷰를 통해 넥스트 노멀 시대가 가져올 패러다임 이슈와 기술사업기회 후보군을 도출하였다.
- 특히 최근 시급성이 높고, 확장성과 시장성 측면의 파급효과가 큰 비즈니스를 10대 유망 기술사업기회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0대 기술사업기회는 ▲접촉자 추적 시스템(Contact tracing system)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 ▲바이오보안(Biosecurity) ▲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 ▲전자회의 시스템(Electronic meeting system)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 ▲디지털 교육 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이다.

개별 기술사업기회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신규 부상성과 시장성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장 가능한 응용 아이템들을 도출하였으며, 본 분석 결과는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의 향후 유망 기술사업기회의 성장동력화와 사업화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ISTI 최희윤 원장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기술사업화 생태계에서 혁신 성장의 주체가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응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이 코로나 19 이후에도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KISTI가 그동안 축적해온 데이터 기반의 지식 인프라와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유망 기술사업기회 분석과 예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